

나의 관심

엄정순

나는 아직도 세상에 있는 모든 대상을 <관찰>하는데 흥미가 있다.

그리고 그 관찰이(보는 것이) 나의 작업의 시작이다.

마치 곤충이 더듬이를 통해 대상을 관찰하고 느끼고 이해하듯, 나의 화면은 대상을 더듬어 가는 과정, 그 행위가 나타나며, 이때 선(line)은 중요한 수단이 된다. 이때 대상은 내 옆에 있는 그릇, 사람일 수도 있고, 꽃, 물, 풍경 등의 자연이기도 하고, 관념 혹은 보이지 않는 그 무엇들도 포함된다.

나는 그것들을 실제로는 잘 모르며, 모든 고정관념을 떠나 전혀 알 수 없는 마치 처음으로 만난 대상처럼 대한다. 이 때 나는 선은 곤충의 더듬이 마냥 천천히, 그 대상을 더듬어 찾아간다. 그러다 보면 선은 표현의 수단 방법을 넘어 종종 그림의 내용이 되어 버리기도 한다.

작품에서의 선(line)에 대해

일상생활에서 보고 느낀 수많은 선에서 갖게 된 체험이 나의 본연의 정서와 어우러지면서 나의 선은 시작되었으며, 미술사 내의 다양한 선들도 나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.

예를 들어, 고려 불화에서의 섬세한 선 그 자체는 재현된 대상을 더욱 강하고 분명하게 전달하는 중요한 힘이었고 세잔느(Cezanne)가 썼던 중첩된, 반복된 선 그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선의 표현 가능성으로 이해되었다.

이외의 수많은 앞 세대의 작품에 나타난 다양한 선의 표현과 그 내용에 대한 체험은 일상과 자연에서 얻게 된 선의 종류들과 함께 나에게 귀중한 영향을 주었다. 그리고 나의 방식으로 읽으며 갖게 되는 <오해>들은 나의 선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.

가능하다면, 많은 매체를 이용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선을 그려 보고 싶기도 하다. 내가 작품에 꽃 등의 식물적 소재와 물, 불 등의 자연적 요소들을 즐겨 쓰는 이유는 그들은 이미 다양한 선을 갖고 있으며, 나의 선으로 자유로이 변형시켜 볼 수 있는 적합한 소재이기 때문이다.

그러고 보면 방향성, 역동성 등과 같은 선의 전통적이며 관념화된 특성이 내 작업에서는 많은 선의 반복을 통해 사라지기도 하며, 때로 선 자체만 남기도 한다. 따라서 수단으로서의 선은 사라져도 선 그 자체가 내용으로 남게 된다.

드로잉(Drawing)에 대하여

선에 대한 나의 관심이 큰 탓도 있지만, 나는 드로잉을 즐긴다.

오래 시간 관찰한 대상이나 개념을 즉각적으로 화면에 옮길 때의 신선함이나 동시성, 단순함, 즉

흥성 등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드로잉만이 가질 수 있는 큰 매력임에 틀림없다. 이때 작가의 고유한 직관이나 느낌, 독창성을 그 어떤 것보다 신속하고 꾸밈없이 그리고 가장 정확히 나타낼 수 있다는 그 점에서도 여전히 매력적이다. 드로잉은 나의 작업의 시작이면서 나의 선 작업과 일관된 흐름에 놓여 있다. 따라서 나의 작업에서 페인팅(painting)과 드로잉(drawing)의 구별은 없다. 아울러 예술세계의 표현의 공통언어나 규범체계 혹은 관계가 이미 사라졌고, 또한 작가의 독창성이나 표현성을 포기하는 것이 유행이 되다시피 한 요즘에 나로서는 앞서 말한 특성 때문에 오히려 드로잉에 더욱 애착을 갖게 된다.